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사업자의 합병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3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

# MWC 폐막...이제는 '주파수 전쟁'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통신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놓고 이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도 팽팽

전 세계 이동통신 기업들이 '5G'와 '가상현실' 등 차세대 먹음거리를 뽐냈던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제 국내 이동통신 기업들은 국내로 무대를 옮겨 현재진행형인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각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 ●주파수 대가 산정 놓고 '갑론을박'

먼저 각사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주파수를 놓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미래 창조과학부는 조만간 주파수 경매 계획을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경매는 4월 경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2.1GHz 대역 20MHz폭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 올해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100MHz폭 중 80MHz(SK텔레콤 40MHz, KT 40MHz)폭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재할당하기로 하고 SK텔레콤

의 20MHz폭만 경매에 붙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LTE를 서비스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 모두 해당 주파수를 추가로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문제는 재할당하기로 한 주파수의 대가 산정 방식이다. LG유플러스가 재할당 대가를 동일 주파수 대역 경매 낙찰가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내세운 논리는 '동일 대역 동일 대가'다. 한쪽에선 치열한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좀 더 낮은 가격에 손에 넣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각사의 LTE 주파수 보유현황(SK텔레콤 95MHz, KT 85MHz, LG유플러스 80MHz)을 감안할 때 현재 시장경쟁 환경은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SK텔레콤은 경매 낙찰가와 재할당 대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SK텔레콤과 KT는 20MHz폭이 아닌 총 60MHz폭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매 낙찰가가 1조원이라고 가정하면 2조원의 부담을 떠안은 채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사 주파수 보유현황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SK텔레콤의 경우 가입자 대비 LTE 주파수 보유량이 경쟁사의 60%~72%에 불

과해 오히려 반대로 사업자 간 주파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KT도 재할당과 경매 낙찰가 연동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주파수 경매가 과연 가격에 치솟을 경우 이 부담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가 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도 팽팽한 대치

현재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건과 관련하여도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CJ헬로비전은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 흡수 합병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진영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미래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하는 쪽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시장 경쟁이나 이용자 보호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합병시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강력한 지배력이 전이돼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 CF 돋보기 | DGB생명·Do Good Better 편

# 무난한 콘셉트...그래서 더 잊혀지기 쉬운 광고

모델 이서진을 캐스팅해 만든 DGB생명의 TV광고 'Do Good Better' 편. 눈치 챌겠지만 'Do Good Better'의 앞 글자를 모으면 'DGB'가 된다. CF는 이서진이 자신의 머리 위에 쓴 세 개의 알파벳 D, G, B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세 글자의 의미를 설명해 나간다. 그렇다. 이것이 CF의 콘셉트이자 전부다.

'D'는 'Do', '하고 싶은 걸 하다'라는 의미다. 회사건물 옥상에 올라간 동료직원에게 이서진이 다가 전기기타를 건넨다. 두 사람은 근심을 잊고 신이 나 기타를 친다. 그리고 보면 이 직원도 "직장인 밴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가 부장에게 "그럴 여유 있으면 일이나 제대로 해!"하고 한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른다.

'G'는 'Good'으로 '좋은 것만 누리다'라는 의미. 부부와 어린 딸이 등장한다. 단란해 보이는 가족의 식탁 위에 이서진이 다가 샐러드 접시를 내려놓는다. 이미 식탁 위에는 진수성



찬이 차려져 있다.

마지막 'B'는 'Better'다. '더 나은 삶을 살다'라는 의미다. 이번엔 전원주택에 사는 노부부의 등장. 다음은 노부부가 해외여행이라고 가는 차림새로 떠나고, 이서진이 뒤편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카피가 뜬다. '이것이 DGB가 생각하는 생명보험의 존재 이유'.

DGB생명의 광고는 보험 광고의 트렌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험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고, 이후 그들의 삶이 변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CF는 트렌드를 따르기는 했지만 '연결'이 조금 모자란다. 이 광고의 목적은 어쨌든 고객의 생명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보험가입과 직장인 밴드, 가족의 좋은 식사, 해외여행이 좀처럼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밴드, 좋은 식사, 해외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하루에 팔굽혀 펴기를 20개씩 해야 한다는 주장처럼 생뚱맞은 데가 있다.

트렌드를 고스란히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게, 큰 고된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와도 상통한다. 한마디로 '어디선가 참 많이도 본 듯한' 광고가 되었다. 광고가 '그게 그거'면 애써 개발한 보험상품도 '그게 그거'로 보일 수 있다. 무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잊혀질 만한 CF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 전립선비대증 방지하면 방광·콩팥에 합병증

남성들은 50세를 기점으로 전립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60~70대에 이르면 대부분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다. 전립선 질환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립선비대증이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압박해 통로의 넓이를 좁게 만들어 갖은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빈뇨, 야간뇨, 절박뇨, 지연뇨, 단절뇨, 방광의 배출 장애와 같은 배뇨증상이 그것이다.

전립선비대증의 원인은 고환의 노화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에 의존하는 기관이므로 전립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성호르몬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호르몬이 생성이 저하되는 고령의 시기에 전립선비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전립선비대증은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방광과 콩팥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심한 경

우에는 요로감염, 혈뇨, 급성요폐, 방광결석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변을 배설하지 못하는 증상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방광의 수축력이 회복 불가능해져 비대해진 전립선을 수술하여도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치료가 중요하다.

전립선비대증은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한방치료과정은 환자의 증상을 체크하는 문진표를 작성 후 소변검사, 전립선 촉진검사, 혈액검사, 생기능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파악되면, 진수환에 양기를 돕는 약재들이 추가된 양기 진수환을 처방하여 음경, 음낭이 차고 습한 것을 없애 소변의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개선해 준다.

한방치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침은 비정상적으로 치우친 장부기능을 파악, 사람의 체질과 몸 상태에 적절한 혈자리에 침치하여

## 효과·안정성 뛰어난 한방치료 인기

오장육부의 기능 회복과 기혈순환을 도와 신체와 정신을 맑게 할 수 있다.

방약은 복진, 설진, 맥진 등의 한의학적인 진단을 통해 오장육부와 정기신혈의 성쇠를 평가하여 환자 개개인의 원인, 증상, 체질별 특징을 찾아서 정상화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 처방을 진행한다.

마그네슘 체어는 전립선비대증의 치료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최첨단 장비이다. 마그네슘 체어는 통증신경을 억제하여 만성골반통증, 전립선통증, 항문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골반근육신경을 자극해 사정력 약화 증상, 변실금, 요실금 증상 등을 치료한다.

이지스한의원 대구점 석영진 원장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 '맛·건강·편의성' 담은 웰빙식품이 뜬다

거버, 건강한 우리아이 1000일 프로젝트  
플무원 '리프레시 클렌즈'로 영양섭취 골



웰빙 트렌드가 2016년에도 이어지면서 식재료 업계에서는 맛과 건강은 물론 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차별화된 콘셉트는 물론 건강 정보까지 함께 제공해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제품들을 살펴봤다.

## ●거버 '1000일 뉴트리션 시스템'

네슬레코리아의 프리미엄 이유식 거버(Gerber)에서는 아기의 평생 건강을 위한 올바른 지침서가 되어줄 '건강한 우리아이 1000일 프로젝트(사진)'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9개월간의 임마의 임신기간부터 출생 후 2년까지 총 1000일에 걸쳐 아기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필요한 영양학적 니즈를 채워주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단계별 영양 시스템이다. 1000일은 아기의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출생 후의 영양 섭취는 아기의 현재 건강과 성인이 된 이후의 식습관, 면역 시스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해 아기의 각 월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고루 담은 단계별 영양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거버는 꼭 필요한 영양소로 아기들의 건강을 도우며 도우려는 프로젝트를 통해 초보 주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 ●플무원 녹즙 '리프레시 클렌즈'

플무원 녹즙은 지난해 11월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건강음료 프로그램 '리프레시 클렌즈'를 선보였다. 그 동안 플무원은 다양한

건강 음료를 선보여 왔지만, 소비자들이 사무실, 가정 등에서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형태로 구성된 제품을 유통업체 최초로 선보였다. 리프레시 클렌즈는 비타민, 식이섬유, 철분 등을 함유한 주스 4종을 하루에 각 2병씩 총 8병을 마시는 프로그램으로, 시간대별로 최적의 영양성분을 섭취해 체내 대사활동을 도울 수 있게끔 구성됐다. 착색료, 착향료를 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콜드체인시스템에 따라 원료수확, 생산, 배송까지 법적 기준인 10°C보다 더 엄격한 5°C 이하를 준수하며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한 것도 장점이다.

## ●이디야커피 '이디야 이너츠'

커피전문점도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견과류를 함께 선보이며 소비자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이디야커피는 '이디야 이너츠'를 리뉴얼 출시했다. 이는 피칸, 크랜베리, 마카다미아, 아몬드, 캐슈넛 등 5종의 견과류로 구성됐다. 이번 리뉴얼은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루어졌는데 피칸과 마카다미아, 크랜베리를 새롭게 추가해 맛과 편의성, 소비자의 건강까지 한번에 충족시켰다. 용량은 견과류 하루 권장 섭취량에 맞춘 25g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툼슨 방한...격투기 팬 '두근두근'

UFC 웰터급 랭킹 2위...이틀간 인터뷰·공개 훈련·사인회 등 소화

'원더보이' 톼슨, 그가 온다.

종합격투기 UFC 웰터급 파이터 '원더보이' 스테판 톼슨(33·미국·사진)이 오는 27일 UFC 홍보 차 한국에 온다. UFC 웰터급 랭킹 2위인 스테판 톼슨은 28일까지 이틀간 미디어 인터뷰와 공개 훈련 및 사인회 등 방한 일정을 소화하며 한국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스테판 톼슨은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IFC에서 열리는 공개훈련을 통해 자신의 주특기인 킥복싱과 타격 기술을 선보인다. 이날 공개훈련에는 여성 파이터 합서희 선수와 '마에스트로' 김동현 선수, UFC 옥타곤걸 유승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스테판 톼슨은 프로 킥복싱 선수 시절부터 무패를 기록하며 세계 킥복싱 챔피언에 5차례 오른 바 있다. 종합격투기 통산전적 12승1패로 강력한 UFC 웰터급 챔피언 타이틀 도전자로 꼽히고 있다. 지난 2월7일에 열린 UFC 전 웰터급 챔피언 조니 헨드릭스와 경기에서 헨드릭스를 1라운드 만에 TKO시키며 웰터급 최다 연속(6회)과 7회의 KO승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공개훈련에 참여하는 합서희 선수는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에서 미국의 코트니 케이시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둔 한국의 대표 여성 파이터로 3월19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벨 링스와 UFC여성 스트로급 경기를 앞두고 있다. '마에스트로' 김동현 선수는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에서 UFC 무대에 데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국내 10호 파이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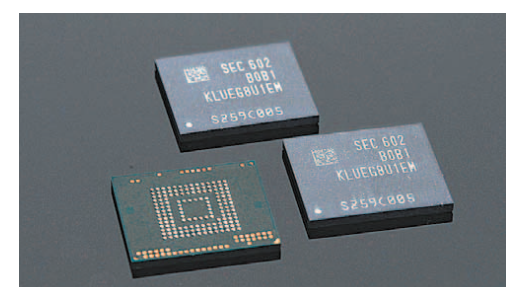
UFC 홍보를 맡고 있는 힐앤놀튼 김상혁 부장은 "최근 연습가도를 달리며 상승세에 있는 스테판 톼슨의 화려한 타격기술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 삼성, 스마트폰용 메모리 '256GB UFS' 양산

초고속·초대용량·초소형 모두 만족

삼성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용 내장메모리 '256GB UFS(Universal Flash Storag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성능 마이크로 SD 카드보다 9배 빠르고(연속읽기 속도 기준) 노트북용 보급형 SSD보다도 2배 가까이 빠르다. 삼성전자는 256GB UFS 메모리는 초고해상도 대화면 액정을 탑재한 차세대 스마트폰에서 요구하는 '초고속·초대용량·초소형' 특성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첨단 V낸드플래시 메모리와 독자 개발 고성능 컨트롤러를 탑재해 마이크로 SD카드보다도 작은 사이즈를 구현해 스마트폰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2개의 UFS 데이터전송 통로를 구성해



850MB/s의 연속읽기 속도를 구현했다. 연속 쓰기 속도도 스마트폰에서 확장 메모리로 사용되는 외장형 고속 마이크로 SD카드보다 약 3배 빠른 260MB/s까지 높였다. 시스템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의 읽기·쓰기 속도도 기존 UFS제품(1만9000/1만4000 IOPS)보다 2배 이상 빠른 4만5000/4만 IOPS를 달성했다.

김영근 기자